

1. (나)는 (가)의 결과이자, (다)의 원인이 되었다.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 (가) 위만 왕조는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자신의 세력을 점차 확대하였다.
 (나)
 (다) 한 무제의 대규모 무력 침략을 받아 마침내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 ①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②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얻어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다.
 ③ 고조선은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한반도까지 발전하였다.
 ④ 고조선은 중국 대륙과 한반도 남부의 직접 교역을 막아 중계 무역의 이익을 독점하였다.

문제해설

(나)에는 위만왕조 시기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④ 위만조선은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동방의 예나 남방의 진이 직접 중국의 한과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 무역의 이익을 독점하려 하였다.

오답노트

- ① 기원전 3세기경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준왕은 위만이 몰아낸 왕이다.
 ②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받아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위만은 그곳에 거주하는 이주민 세력을 통솔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그 후 위만은 수도인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③ 고조선은 요령 지방과 한반도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정답 : ④]

2.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 ①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던 것은 분권적인 봉건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② 한국사는 한국인의 주체적인 역사이며 사회구성원들의 총체적인 삶의 역사이다.
 ③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는 세계사 안에서 한국사를 올바르게 보는 관점을 제공한다.
 ④ 다양한 기준에 의거해 시대구분을 하더라도 한국사의 발전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해설

② 한국사는 한국인이 중심이 되어 움직여 온 역사이다. 또한 특정한 개인이나 신분·계층만의 역사가 아닌 사회구성원들의 총체적인 삶의 역사이다.

③ 모든 민족의 역사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역사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세계사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균형 있게 파악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 한국사를 보는 관점에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 한국사는 각 시기마다 일직선적으로 역사가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몇 개의 도약기를 거치며 전개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 양상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

오답노트

- ① 식민사학의 하나인 정체성론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답 : ①]

3. 다음 사실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내가 장단 적소에 있을 때 해서 면포 상인의 왕래가 끊이지 않은 것을 보았는데 길 가는 사람들이 통공 발매의 효과라 하였다. 작년 겨울 서울의 면포 가격이 이 때문에 등귀하지 않아 서울 사람들이 생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① 포구에 객주나 여각이 크게 발달하였다.
- ②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 ③ 활구의 제작으로 은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 ④ 주점과 다점 등 관영 상점이 크게 늘어났다.

문제해설

제시문은 1793년(정조 17) 채제공이 정조에게 이야기한 내용이다. 신해통공 실시(1791년, 정조 15)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과 자신의 생각을 진언하였다.

① 종래 세곡을 운송하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던 포구가 조선 후기에는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해나갔다. 연해안이나 큰 강 유역에는 포구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가까이에 있는 포구 간에 또는 인근의 장시와 연계하면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그 후 선상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전국 각지의 포구가 하나의 유통권을 형성하여 갔다. 포구를 거점으로 상행위를 하는 상인으로는 선상, 객주, 여각 등이 있었다.

오답노트

- ②, ③, ④ 고려시대의 상황이다.
- ②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를 비롯한 항구들이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벽란도는 중국과의 교통이 편리하고 개경에서도 가까워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 ③ 고려 숙종 때 은 1근으로 은병을 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따 만들었기 때문에 활구라고도 한다. 은으로 화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은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 ④ 개경, 서경(평양), 동경(경주) 등의 대도시에는 관청의 수공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서적점 [약점과 술 다] 등을 파는 주점, 다점 등 관영 상점을 두기도 하였다.

[정답 : ①]

4. 밑줄 친 '이 역서'가 편찬된 시기의 농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왕께서 학자들에게 명하여 선명력과 수시력 등 여러 역법의 차이를 비교하여 교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인지, 정홍지, 정초 등에게 명하여 『태음통궐』과 『태양통궐』 등 중국 역서를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이 역서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 ① 발농사에 2년 3작의 윤작법이 시작되었다.
- ②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 ③ 철제 농기구가 점차 보급되고 우경이 시작되었다.
- ④ 농업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 『농사직설』이 간행되었다.

문제해설

제시문은 세종 때 상황이며 밑줄 친 '이 역서'는 칠정산이다. '칠정(七政 : 일곱 천체, 나라 다스릴 정)'이란 해, 달, 수성, 화성, 목성, 토성, 금성의 일곱 천체를 정사(政事)에 비유한 것이다.

④ 세종은 정초 등에게 명하여 『농사직설』을 편찬하게 하였다. 『농사직설』은 중국의 농서인 『제민요술』과 『농상집요』를 참고하고 우리나라 농부의 경험을 수집하여 저술한 조선 전기의 대표적 농서이다.

오답노트

- ① 2년 3작의 윤작법은 고려시대에 시작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더욱 확대되었다.
- ② 조선 후기의 상황이다.
- ③ 삼국시대의 상황이다.

[정답 : ④]

5. 다음은 신라 토지제도의 전개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 신문왕 7년, ㉠을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 신문왕 9년, 내외관의 ㉡을 혁파하였다.
- 성덕왕 21년, 처음으로 백성에게 ㉢을 지급하였다
- 경덕왕 16년, 다시 ㉣을 지급하였다.

	㉠	㉡	㉢	㉣
①	녹읍	식읍	민전	식읍
②	식읍	녹읍	정전	녹읍
③	문무관료전	녹읍	정전	녹읍
④	문무관료전	식읍	민전	식읍

문제해설

신문왕 7년(687) 문무관료전을 지급하고, 신문왕 9년(689) 녹읍을 혁파하였다.
 성덕왕 21년(722)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국가적으로 공인한 것으로 해석한다.
 경덕왕 16년(757) 녹읍이 다시 부활했다.

오답노트

식읍은 왕족이나 공신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민전은 주로 고려시대 민이 가진 사유지를 의미하며 조선시대에도 사용된 용어이다. 통일신라시대 촌락문서에 나오는 연수유답전도 명칭은 다르지만 민전과 같은 성격의 토지로 볼 수 있다.

[정답 : ③]

6. 다음은 조선 건국 후 법령을 집대성한 『경국대전』 서문의 일부이다. 이를 반포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천지가 광대하여 만물이 덮여 있고 실려 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사시의 운행으로 만물이 생육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성인 이 제도를 만드심에 만물이 기쁘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진실로 성인이 제도를 만드심은 천지·사시와 같은 것이다.

- ① 직전제 실시 이후 심해진 관리들의 수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였다.
- ② 법전 편찬에 심혈을 기울여 『조선경국전』, 『경제육전』 등도 간행하였다.
- ③ 왕권을 안정시키고 사림정치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 ④ 성균관에 존경각을 짓고 서적을 소장하게 하였다.

문제해설

『경국대전』은 세종 때 편찬에 착수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다.
 ① 성종 원년(1470)에 직전제 실시에 따른 토지의 경병 및 관리들의 수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경작자로부터 직접 조를 거두어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수조권자의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차단하고 국가의 과전지배를 강화하였다.
 ③ 향촌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굳히던 사람은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권력에 참여함으로써 훈구 세력을 견제하였다. 김종직과 그 문인이 성종 때에 중앙에 진출하면서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과거를 통하여 중앙에 진출한 사람 세력은 주로 전랑과 3사의 연관직을 차지하고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였다.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림 세력을 중용하였기 때문에,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④ 성균관에 존경각(尊經閣)을 짓고 경적을 소장시켜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양현고를 충실히 하였다.

오답노트

② 조선 태조 때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조준의 『경제육전』이 편찬되었다.

[정답 : ②]

7. 다음 중 같은 국왕 대에 일어난 사실들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 (가) 적극적인 북벌운동을 계획하고 어영청을 2만여 명으로 확대하였다.
 (나) 서인이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과 윤증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갈라졌다.
 (다) 대외적으로 명과 후금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실리적인 외교정책을 펼쳤다.

- ㄱ. 하멜이 가져온 조총의 기술을 활용하여 서양식 무기를 제조하였다.
 ㄴ. 후금의 태종이 광해군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황해도 평산까지 쳐들어 왔다.
 ㄷ. 대동법을 처음으로 경기도에 시행하였다.
 ㄹ.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토문강을 경계로 삼았다.

- ① (가) - ㄱ
 ② (가) - ㄴ
 ③ (나) - ㄱ
 ④ (다) - ㄷ

문제해설

- ④ (가) 효종 때, (나) 숙종 때, (다) 광해군 때 상황이다. ㄱ. 효종 때, ㄴ. 인조 때, ㄷ. 광해군 때, ㄹ. 숙종 때의 일이다.
 (가) 효종은 북벌정책을 추진하여 어영군의 규모를 이전의 3배인 2만 1000여 명으로 확대하였다.
 (나) 노론·소론 분열은 숙종 때 경신환국(1680년, 숙종 6) 이후이다.
 (다)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조선과 명의 힘이 약화된 틈을 타서 압록강 북쪽에 살던 건주위 여진의 추장 누르하치가 부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1616년)하였다. 후금이 명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자 명은 후금을 공격하는 한편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광해군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중한 중립외교 정책을 펼쳤다.
 ㄱ. 인조 때에는 네덜란드 사람인 벨테브레이(박연) 일행이, 효종 때에는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착한 일이 있었다. 하멜 일행으로부터 새로운 조총을 얻었으며 이들이 표류한 이후에는 조총 제작의 발달이 있었다.
 ㄴ. 후금은 광해군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쳐들어와 평안도 의주를 거쳐 황해도 평산에 이르렀다. 이를 정묘호란(1627)이라고 한다.
 ㄷ. 대동법을 처음 시행한 것은 광해군이다. 효종 3년에 어영청의 설립과 함께 충청도에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ㄹ. 숙종 38년(1712)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동쪽으로 토문강을, 서쪽으로 압록강을 경계로 삼았다. 19세기 후반 이 비석의 토문강에 대한 해석을 두고 청나라와 간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답 : ④]

8. 다음 주장을 한 정치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우와 창은 본래 왕씨가 아니기 때문에 종사를 받들 수 없으며, 또한 천자의 명이 있으니 마땅히 가를 폐하고 진을 세울 것이다. 정창군 왕요는 신종의 7대 손으로 그 족속이 가장 가까우니 마땅히 세울 것이다.

- ㄱ. 전제왕권 중심의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 ㄴ. 이색, 정몽주, 윤소중 등을 숙청하였다.
- ㄷ. 전제 개혁을 추진하여 과전법을 시행하였다.
- ㄹ. 군제를 개혁하여 삼군도총제부를 설치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ㄹ

문제해설

제시문의 가를 폐하고 진을 세울 것은 ‘폐가입진’을 나타내며 정창군 왕요는 공양왕이다. 우왕과 창왕을 공민왕의 자손이 아니라고 보고 폐가 입진(廢 폐할 폐, 假 거짓 가, 立 설 립, 眞 참 진)의 논리를 내세워 정창군 왕요를 왕위에 올렸다.
ㄷ, ㄹ. 공양왕 3년(1391) 정월에 군사최고통수기관으로서 삼군도총제부가 설치되었고 이성계는 도총제사, 조준은 좌군총제사, 정도전은 우군총제사가 되어 병권을 장악하였다. 그 해 5월에는 과전법을 실시하여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삼군도총제부는 조선 건국 이후 태조 2년(1393) 의흥삼군부로 이어진다.

오답노트

- ㄱ. 혁명파 사대부는 재상중심의 정치체제를 지향하였다.
- ㄴ. 윤소중은 조선왕조 건국에 협력한 혁명파 사대부이다.

[정답 : ③]

9.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 순서로 보아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 (가)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 (나) 신라가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하였다.
- (다)
- (라) 백제가 일본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하였다.

- ① 백제가 사비성으로 천도하였다.
- ② 고구려가 살수에서 수나라에 크게 승리하였다.
- ③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였다.
- ④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왕이 나제동맹을 맺었다.

문제해설

(가) 고구려의 평양천도는 427년(장수왕 15)의 일이다. (나) 신라는 536년(법흥왕 23)에 건원(建元)이라는 연호를 정했다. (라) 6세기 중엽 성왕 때 일본에 불교를 전했다.
① 백제의 사비천도는 538년(성왕 16)의 일이다.

오답노트

- ② 고구려 살수대첩 승리는 612년(영양왕 23)의 일이다.
- ③ 신라는 527년(법흥왕 14) 이차돈의 순교 이후 불교를 공인하였다.
- ④ 나제동맹은 433(신라 눌지마립간 17, 백제 비유왕 7)년의 일이다. 이후 493년(백제 동성왕 15, 신라 소지왕 15)에는 혼인동맹을 맺어 나제동맹을 강화하였다.

[정답 : ①]

10. 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 ① 고려는 국초에 역분전을 지급하였고, 경종 때 처음으로 전시과제도를 시행하였다.
- ② 전시과 체제 하의 민전은 사유지이지만,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하면 공전인 경우도 있다.
- ③ 과전법에서는 문무 관료들에게 경기지방의 토지에 한해서 과전의 수조권을 지급하였고, 군인들에게는 군전을 지급하였다.
- ④ 과전법에서는 토지 수확량의 1/10을 기준으로 1결마다 30말을 거두었으나, 답험손실법을 적용하여 손실에 비례하여 공제해 주도록 하였다.

문제해설

- ① 고려 태조 때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전시과 제도는 경종 원년(976)의 시정전시과를 시작으로 목종 원년(998)의 개정전시과와 문종 30년(1076)의 경정전시과를 거치면서 정비되었다.
- ② 민전은 민이 소유한 사유지를 의미한다. 민전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면 사유지가 되지만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하면 국가수조지로서의 공전이나 개인수조지로서의 사전이 될 수도 있었다. 즉 사유지로서의 민전에서 국가가 세금을 거두거나 관리 등 직역 담당자의 수조권이 분급될 수 있었던 것이다.
- ④ 과전법의 경우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결당 최대 30두를 거두었다. 여기에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는 답험손실법을 제정하였다.

오답노트

- ③ 과전법을 처음 시행할 당시인 1391년(고려 공양왕 3) 한량관에게 군전을 지급하였으며 태종 때에는 군자전(군량의 용도로 수조된 토지)에 군전이 편입되었다. 세종 때에 이르러 사실상 거의 소멸되었고, 세조 때 직전법 실시 이후 제도적으로도 완전히 소멸되었다.

[정답 : ③]

11. 다음 서적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 ① 『해동고승전』은 삼국시대 이래 고려시대까지 승려 30여 명의 계통을 밝힌 책이다.
- ② 『동명왕편』은 이규보가 쓴 것으로 고구려 건국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서사시이다.
- ③ 『제왕운기』는 우리 역사의 서술을 단군부터 시작하여 중국 역사만큼 유구하다고 보았다.
- ④ 『동국통감』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하였다.

문제해설

- ②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의 건국 시조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 서사시이다. 종래 한문학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문장체로 표현하였다.
- ③ 이승휴는 『제왕운기』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군으로부터 서술하고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여 자주성을 드러냈다.
- ④ 『동국통감』은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한 역사서이다. 단군조선으로부터 삼한까지의 역사는 외기(外紀)로, 삼국 초부터 삼국 공존기간의 역사는 삼국기(三國紀), 문무왕 9년 이후의 역사를 신라기(新羅紀), 고려 태조 19년(936) 이후의 역사를 고려기(高麗紀)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삼국기에서는 삼국의 역사를 하나의 월년으로 서술하되 삼국이 당시 대등한 관계에 있었음을 중시하여 삼국의 역사를 대등하게 서술하였다.

오답노트

- ① 각훈의 『해동고승전』에 우리나라 승려들은 삼국시대 승려 33명이 있다.

[정답 : ①]

12. 밑줄 친 '이 단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이 단체는 본격적으로 자신을 수호하는 운동을 벌이기에 앞서 정부로부터의 허가 과정에서 유배에 처해진 회장의 유배 해제를 주장하는 강경한 상소를 올렸다. 정부의 반응이 소극적이라 이 단체는 독립협회의 민권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그들의 운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이 단체는 독립협회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한 노륙법과 연좌법의 부활 저지운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 ①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등의 언론기관이 참여하였다.
- ② 시전 상인들이 경제적 특권 회복을 요구하였다.
- ③ 대한자강회 등의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참여하였다.
- ④ 통감부는 양기탁을 형령 혐의로 구속하는 등 탄압하였다.

문제해설

제시문은 황국중앙총상회(1898)에 대한 설명이다. 독립협회의 노륙법(처자까지 연좌하여 죽이는 법) 및 연좌법 부활저지, 자강개혁신단 수립 요구, 독립협회지도자 17인 석방운동, 독립협회 복설운동, 황국협회와의 투쟁 등 자주민권 자강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였다.

② 황국중앙총상회는 외국상인의 침투에 대항하여 민족적 권익을 수호하면서 그 속에서 시전상인의 독점적 이익을 수호·유지하고자 설립되었다.

오답노트

- ①, ③, ④ 1907~8년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 ① 국채보상운동 취지서가 발표되자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만세보》등의 언론기관이 이를 홍보하였다.
- ③ 대한자강회, 서우학회도 등의 단체가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
- ④ 일제는 1907년 이후 베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공작을 펴, 1908년 5월 3주(週)의 금고와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통감부 당국은 “대한매일신보가 보관한 국채보상금을 베델·양기탁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하여 3만원을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기탁을 구속해 버렸다.

[정답 : ②]

13.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의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 ① 3·1운동을 계기로 운동 이념상 북벽주의는 점차 청산되었다.
- ② 1920년대에는 민족주의운동과 사회주의운동으로 분화되었다.
- ③ 1920년대 중엽에는 신간회가 해소되고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 ④ 1930년대 후반에는 통일전선운동과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문제해설

① 1910년대까지는 독립이념 방략을 북벽주의와 공화주의로 나눌 수 있다. 3·1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화주의를 지향했고 3·1운동을 계기로 민족독립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정치적 지향도 합의를 이루어냈다. 3·1운동이 확산되면서 북벽주의는 사라지고 공화주의가 확대되었다.

② 사회주의는 3·1운동을 전후하여 수용되어 1920년대에는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독립운동의 두 갈래가 되었다. 민족주의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민족유일당 운동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④ 중일전쟁 발발(1937) 이후 민족해방운동전선이 활기를 띠게 되자 민족통일전선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37년 중국 관내에서 우익은 한국광복운동단체인합회로, 좌익은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통일되었으며, 이후 이 두 단체를 통일한 전국연합전선협회(1939)가 성립되었다. 만주에서는 1936년에 조국광복회(전광·김일성)가 결성되고 중국 관내에서는 1938년에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조선의 용대(김원봉)를 결성하였고, 한국광복운동단체인합회가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이청천)를 조직하였다. 1939년에 공작대를 개편하여 임시정부 군사특파단(조성환)과 한국청년전지공작대(나월환)를 전선에 파견하였다.

오답노트

③ 신간회는 1927년 창립되어 1931년 해소되었다. 초기의 소작 쟁의는 소작료 인하 등 생존권을 지키려는 경제적 투쟁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민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노선 변화와 맞물려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사회주의자들은 기존의 합법적 농민 조합대신 비합법적, 혁명적 농민 조합을 조직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대부분 좌절되었다.

[정답 : ③]

14. 고려시대 음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 ㄱ. 공신의 후손을 위한 음서도 있었다.
- ㄴ. 음서 출신자는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
- ㄷ. 10세 미만이 음직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 ㄹ. 왕의 즉위와 같은 특별한 시기에만 주어졌다.

- ① ㄱ, ㄷ
- ② ㄱ, ㄴ
- ③ ㄴ, ㄹ
- ④ ㄷ, ㄹ

문제해설

- ㄱ. 음서는 5품 이상 관리의 자손과 공훈이 있는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 ㄴ. 규정상으로는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례는 5세에서 33세까지 나타난다.

오답노트

- ㄴ. 음서로 처음 수여한 관직은 대부분 낮은 관품이었다. 음서출신자는 이후 승진할 수 있는 품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과거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임명될 수 있는 관직 가운데 약간의 제한은 있었다. 한림원, 사관, 비서성, 보문각, 동문원, 유원의 문한직은 과거출신자만 임명하였다.
- ㄹ. 음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 왕의 즉위, 태자 책봉 등 국가적 경사가 있을 경우에 시행되는 음서도 있었지만 1년에 수차례 시행되는 음서도 있었다.

[정답 : ①]

15. 우리 문화와 관련된 서적과 그 분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 ① 『자산어보』 - 의학
- ② 『연조귀감』 - 역사학
- ③ 『색경』 - 지리학
- ④ 『벽온신방』 - 양명학

문제해설

- ② 이진흥의 『연조귀감』은 항리에 대한 역사서이다. 영조 말에서 정조 초년에 편찬되었다. 현재 알려진 것은 이진흥의 증손자 이명구에 의해 1848년(현종 14) 무렵에 간행된 것이다.

오답노트

- ① 『자산어보』는 19세기 전반 순조 때 정약전(정약용의 형)이 편찬한 어류에 대한 책이다. 1801년(순조 원년) 신유박해 당시 정약용과 함께 화를 입어 정약용은 장기를 거쳐 강진에 유배되고, 정약전은 신지도를 거쳐 흑산도(黑山島)에 유배되었다. '자산어보(玆山魚譜 : 겹을 자, 산 산, 물고기 어, 족보·계보 보)'라고 이름붙인 데 대해 정약전은 자서의 서두에서 말하기를, '자(玆)'는 흑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으므로 자산은 곧 흑산과 같은 말이나, 흑산이라는 이름은 음침하고 어두워 두려운 데다가 가족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흑산 대신에 자산이라고 일컬었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 ③ 『색경』은 17세기 후반 숙종 때 박세당이 지은 농서이다. '색(穡)'은 '수확하다', '곡식', '농사' 등을 뜻한다.
- ④ 『벽온신방』은 17세기 중반 효종 때 황해도에 여역(癘疫 : 돌림으로 앓는 열병)이 크게 유행하였을 때 왕명을 받아 여의 안경창이 편찬하였다. 『벽온신방』(辟瘟新方 : 물리칠 벽, 염병 온, 새로운 신, 모·처방 방)은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서이다.

[정답 : ②]

16. 다음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족보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족보의 기재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이 족보가 편찬되었을 무렵의 가족 제도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 자녀는 출생 순서에 따라 기재하였다.
◦ 딸이 재혼하였을 경우 후부(後夫)라 하여 재혼한 남편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 자녀가 없는 사람은 무후(無後)라 기재하였고, 양자를 들인 사례는 거의 없다.

ㄱ. 적서의 차별이 없었을 것이다.
ㄴ. 친영제도가 일반화되었을 것이다.
ㄷ. 형제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ㄹ. 재산 상속에서 아들과 딸의 차별이 없었을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제해설

제시문은 『안동 권씨 성화보』로 불리는 안동 권씨 족보에 대한 것이다. 1476년(성종 7년)에 간행된 안동 권씨 성화보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족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성화(成化)’라는 명칭은 간행 당시의 중국 연호에서 비롯되었다. 딸과 외손의 이름까지 모두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위 이름 앞에는 ‘여부(女夫)’라고 기재하였는데, 딸이 재혼한 경우에는 후부(後夫)라고 표시하고 그 이름을 실었다. 또한 남녀의 구분 없이 출생 순서로 수록하였다. 딸과 외손에 대한 차별이 후기보다 훨씬 적거나 없었음을 보여준다. ㄷ, ㄹ. 조선 중기까지는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아들과 딸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다. 집안의 대를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의 상속분을 더 준다는 것 외에는 모든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산 상속을 같이 나누어 받는 만큼 그 의무인 제사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였다.

오답노트

ㄱ. 적서의 차별은 존재하였다. 건국 초까지는 적서 차별이 심하지 않았으나 서열에 대한 차별은 점차 심화되어 성종 때 『경국대전』에 문과응시 금지가 법제화되었다.
ㄴ. 친영제도가 일반화된 것은 남자 위주로 족보가 기재되던 시기인 조선 후기이다.

[정답 : ④]

17. 밀줄 친 ‘그의 사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그의 사상은 돈오점수와 정혜쌍수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고(선 돈오) 이를 바탕으로 수련을 계속해야 하며(후 점수) 그 수행에 있어서는 정과 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 ① 고려 무신정권의 비호 아래 천태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② 왕권 우위의 중앙집권적 귀족사회에 적합한 이념 체계를 제공하였다.
③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의 성장에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④ 고려 후기의 불교계를 선종 중심으로 혁신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문제해설

밀줄 친 ‘그의 사상’은 고려시대 지눌의 사상이다.

④ 지눌은 선과 교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선도하였다. 또, 지눌은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오답노트

- ① 고려 무신정권의 비호 아래 조계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② 교종에 대한 설명이다.
③ 성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 ④]

18. 남북국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 ①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옛 지배층에게 관등을 주어 포용하였다.
- ② 신라의 6두품 출신들은 학문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진출을 활발하게 하였다.
- ③ 발해의 주민 중 다수는 말갈인이었는데 이들은 지배층에 편입되지 못하였다.
- ④ 발해는 당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였으나 고구려와 말갈의 전통을 유지하였다.

문제해설

- ① 백제와 고구려인들에게 본국에서의 관등을 고려하여 신라의 관등을 수여하였다.
- ② 6두품 출신은 학문적 식견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왕을 보좌하면서 정치적 진출을 활발히 하였다. 그렇지만 신분의 제약으로 인하여 중앙의 장관직에 임명될 수 없었고 지방의 장관 자리에도 사실상 임명되기 힘들었다.
- ④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고 당의 문화도 수용하였으며 발해의 지방 사회에는 말갈의 토착문화가 남아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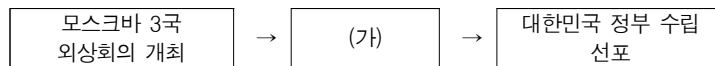
오답노트

- ③ 말갈인은 대부분 발해의 피지배층이었으나 일부는 지배층에 편입되었다.

[정답 : ③]

19.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 시기에 일어난 사실이 아닌 것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 ①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 ②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 ③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 ④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문제해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1945년 12월, 대한민국 정부 선포는 1948년 8월 15일이다.

- ① 1947년 10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 ③ 1948년 4월의 일이다.
- ④ 1948년 5월 10일의 일이다.

오답노트

- ② 1948년 9월 제정되었다.

[정답 : ②]

20.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_9급_사회복지직)

- ① 돌로 방을 만들고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를 설치하였다.
- ② 황남대총, 장군총, 천마총 등의 사례가 있다.
- ③ 무덤 안에 벽돌로 널방을 만들고 그 안에 돌로 덧널을 설치하였다.
- ④ 무덤 안에서 많은 부장품이 출토되었는데 서봉총 등의 사례가 있다.

문제해설

④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적석목곽분) : 쌓을 적, 돌 석, 나무 목, 덧널 곽, 무덤 분]은 신라에서 주로 만든 무덤으로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깨문거리를 넣은 나무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널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다. 도굴이 어려워 많은 깨문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돌무지덧널무덤 양식인 서봉총에서는 금관, 금·은팔지, 유리팔지 등이 출토되었다. 서봉총 고분 발굴에 스웨덴의 구스타프 황태자가 참가한 것을 기념하여, 스웨덴의 한자 명칭인 서전(瑞典)의 '서(瑞)'자와 이 고분 출토 금관의 봉황(鳳凰) 장식에서 '봉(鳳)'자를 따서 서봉총(瑞鳳塚)이라 이름지었다.

오답노트

- ① 굴식돌방무덤에 대한 설명이다.
- ② 신라의 황남대총과 천마총은 돌무지무덤이지만 고구려 장군총은 돌무지무덤[積石塚(적석총) : 쌓을 적, 돌 석, 무덤 총]이다.
- ③ 벽돌로 널방을 만든 것은 벽돌무덤이다.

[정답 : ④]